

[P3-3]

건강기능성식품 피해접수체계 구축 및 사례분석김해자¹, 임현택¹, 제미경², 김정인³, 김영옥², 이경옥², 김지선², 전향란²¹소비자연맹, 부산광역시회, ²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김해
³인제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김해**The case study and consumer redress system of the harmful ingredients of functional health foods**

HJ.Kim, HT.Im, MK.JAE, JI.Kim, YO.Kim, KO.Lee, JS.Kim, HR.Chun

Busan Consumer Union of Korea , Inje university

최근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급속도로 신장되고 있으나, 건강기능성식품의 부작용 피해를 입어도 부작용의 원인을 알아내기 어려워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작용을 조기에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부작용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부작용 사례를 유형화해 보고자 하였다. 건강기능성 식품 부작용 전문신고센터는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광역시회에서 타 지역의 9개 소비자단체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전문상담전화 및 자체 제작한 전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피해접수를 하고 DB로 자동전환되게 하였다. 부작용 상담사례는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훨씬 많았고,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대, 60대 순이었고, 접수방법은 과반수 이상이 전화접수였고 다음이 인터넷 접수였다. 구매방법은 방문판매, 노상판매, 일반판매, 전화판매 순이었고, 구매목적은 건강증진이 과반수 이상 이었고, 다음이 건강회복, 체중조절 순이었다. 상품 형태는 캡슐이 가장 많았다. 상품 종류는 기타(다이어트식품, 유황오리, 가시오가피 등)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삼·홍삼제품, 영양보충제와 키토산 순이었다. 부작용은 설사, 복통과 기타, 위통, 피부발진, 구토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상담처리결과는 의사진단서 첨부한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철회 안내를 하는 등의 상담이 6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환불 및 반품, 시정조치, 1399 안내의 순이었다. 따라서 건강기능성식품 부작용을 줄이며 긍정적 효과를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용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건강관련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번거로운 부작용 피해보고 제도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부작용 시스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 DB에 대한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